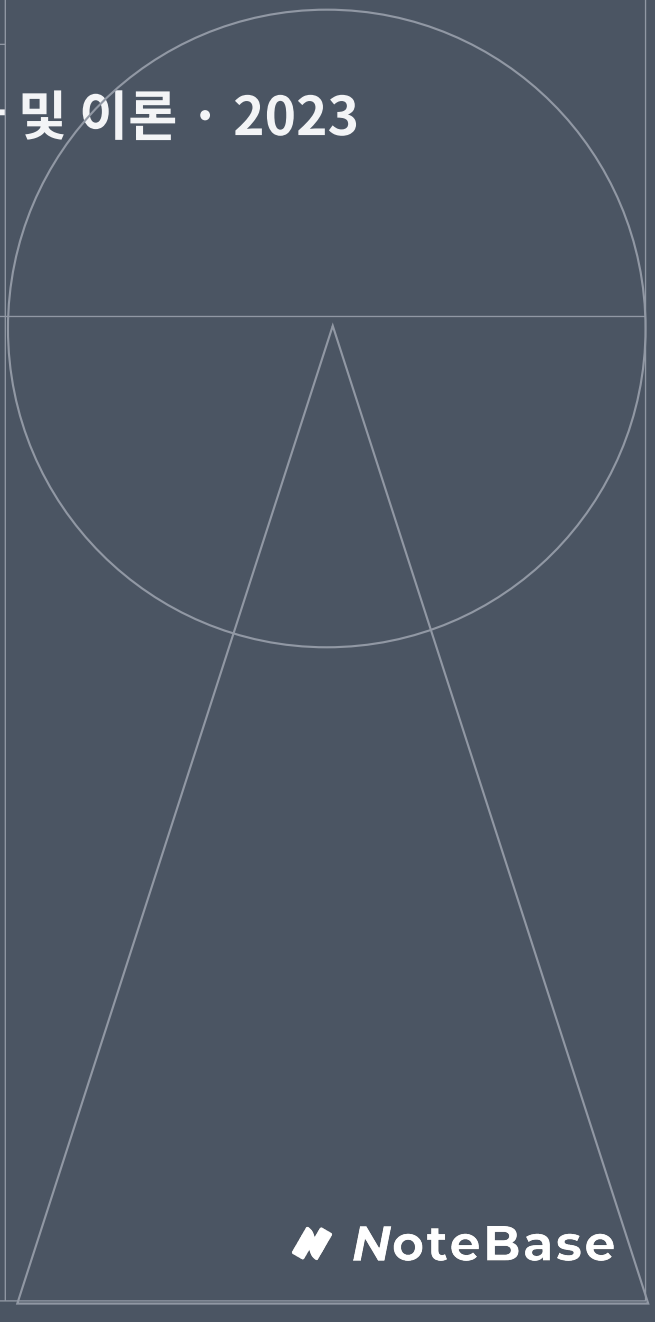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3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3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3

**문 1. 이집트 테베(Thebes)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정원벽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원 내 사자의 중정이 있다.

② 제18왕조 아메노피스 3세와 관련있는 분묘정원이다.

③ 정원은 정방형으로,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④ 물가에는 원정(園亭)의 하나인 키오스크(kiosk)가 설치되어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테베 지역의 고대 이집트 정원벽화가 보여 주는 분묘정원의 구성 요소와 평면 특성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테베의 고대 정원벽화는 제18왕조 무렵 분묘정원의 모습을 전하는 자료로, 중앙의 연못, 기하학적으로 정돈된 식재, 담장으로 둘러싸인 폐쇄형 구성이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사자의 중정`이다.
이 벽화의 핵심 공간은 사자와 관련된 중정이 아니라 물고기와 새가 있는 중앙 연못과 그 둘레의 수목 배치이다.
올바르게는 `정원 중심에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연못이 배치되어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이 벽화는 테베의 무덤벽화 계열에 속하고, 제18왕조의 투트모세 4세 또는 아메노피스 3세 무렵으로 본다.
따라서 아메노피스 3세와 관련된 분묘정원이라는 설명은 문제 취지상 옳다.

③ O
고대 이집트 정원은 기하학적 정형식 구성이 두드러지고 외곽을 담장으로 둘러싼 폐쇄형 구성이 특징이다.
엄밀히는 중앙 수반이 직사각형에 가깝지만, 선지가 묻는 핵심은 정형 평면과 담장식 구성이라는 점이므로 옳다.

④ O
고대 이집트의 분묘정원과 주거정원에는 연못가의 원정형 휴식 공간, 즉 키오스크형 정자를 두는 구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물가에 키오스크가 설치된다는 설명은 정원 구성 요소를 짚은 것으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①은 이집트 정원의 대표 요소인 중앙 연못을 전혀 다른 요소로 바꿔 놓은 선지이다. ③은 `정방형`이라는 표현 때문에 망설이기 쉽지만, 출제 포인트는 정확한 치수보다 정형식과 담장식 폐쇄성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대 이집트 정원 문제는 `중앙 연못-열식 수목 배치-담장으로 둘러싸인 폐쇄형 평면-연못가의 원정`의 조합이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테베 정원벽화는 `사자 중정`이 아니라 `중앙 연못과 담장식 정형 정원`이다.

NoteBase

**문 2. 16세기 초반 이탈리아 조경양식을 보여주는 코르틸레 델 벨베데레(Cortile del Belvedere)의 정원 조성기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축의 개념

② 가로수길

③ 노단건축법

④ 기하학적 대칭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코르틸레 델 벨베데레로 대표되는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의 핵심 구성 요소와 다른 양식의 요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코르틸레 델 벨베데레는 경사진 지형을 축선으로 정리하고, 테라스와 계단으로 상하 공간을 연결하며, 기하학적 질서를 강조하는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이다. 핵심 키워드는 축, 노단, 대칭이며 긴 가로수길 자체가 중심 조성기법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축의 개념은 르네상스 정원의 핵심이다. 벨베데레는 중심 축을 따라 상하 공간을 통일감 있게 연결하는 구성을 보인다.

② X

틀린 부분은 "가로수길"이다. 벨베데레의 핵심은 가로수가 늘어선 대로가 아니라 경사지에 축선을 두고 노단과 계단, 테라스로 공간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올바르게는 "축선 중심의 노단식·기하학적 구성"이라고 정리하는 편이 맞다.

③ O

노단건축법은 경사진 지형을 여러 단의 평탄면으로 나누어 공간을 단계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 특히 벨베데레 같은 경사지 정원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④ O

기하학적 대칭은 르네상스 정원의 질서감과 인공미를 보여 주는 요소이다. 벨베데레 역시 비례와 대칭을 통해 공간을 정제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르네상스 정원은 직선적이다"라는 기억만으로 ②를 맞는 요소처럼 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단순한 직선성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조직하느냐를 묻는다. 긴 가로수길은 프랑스식 정원에서 더 전형적이고, 벨베데레는 축선과 노단의 결합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이 나오면 먼저 지형이 경사지인지, 축선이 강조되는지, 노단과 계단으로 공간을 전개하는지를 본다. 선지에 긴 가로수길이나 광대한 평지형 대로가 나오면 프랑스식 정원의 요소인지부터 의심하는 판단이 유효하다.

**암기 포인트**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은 축·노단·대칭이고, 긴 가로수길은 프랑스식에서 더 전형적이다.

NoteBase

**문 3. 고대 그리스의 조경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각적인 질서보다는 체험적인 공간의 연결이 우선시되었다.

② 구릉이 많은 지형적 특성에 큰 영향을 받았다.

③ 사적인 영역보다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도시조경이 발달하였다.

④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저수지, 분천, 수로 등의 수경시설이 정원의 구조를 지배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대 그리스 조경양식의 기본 성격을 묻는 문제로, 지형 순응성·공공성·수경 비중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핵심 개념**

고대 그리스 조경은 구릉지 지형에 순응하면서 성소, 아고라, 체육장 같은 공공 공간과 연결되어 발달한 양식이다. 핵심 키워드는 지형 순응, 체험적 동선, 공공 공간 중심, 수경 비중 낮음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고대 그리스 조경은 평탄한 대지 위에 강한 축과 대칭을 세우는 방식보다, 경사지와 성소를 따라 이동하면서 공간을 경험하는 구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시각적 질서보다 체험적 공간 연결이 우선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② O

그리스는 구릉과 암반이 많은 지형이어서 조경 공간도 평지 중심의 정형식보다는 지형을 따르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지형적 특성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설명은 옳다.

③ O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전 주변 성역, 아고라, 체육장과 같은 공공적 성격의 외부 공간이 중요하게 발달하였다. 따라서 사적 정원보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도시조경이 발달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④ X

틀린 표현은 "저수지, 분천, 수로 등의 수경시설이 정원의 구조를 지배했다"는 부분이다. 고대 그리스는 건조한 기후와 제한된 수자원 때문에 수경시설이 정원 전체를 지배하는 양식이 아니었고, 오히려 지형 순응과 건축·성역 주변 공간 구성이 중심이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건조한 기후라는 단서를 오히려 반대로 이용한 선지이다. 수경시설이 발달한 문화를 떠올리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고대 그리스 조경의 핵심은 물의 과시가 아니라 지형 순응과 공공 공간의 구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대 그리스 조경이 나오면 먼저 구릉지 적응형인지, 공공 공간 중심인지, 수경시설 중심인지를 나누어 본다. 지형 순응과 공공성은 맞는 방향이고, 물시설이 정원을 지배했다는 설명은 다른 문화권의 특징에 가깝다.

**암기 포인트**

그리스 조경은 구릉지 순응형 공공 공간이고, 수경 지배형 정원은 아니다.

NoteBase

**문 4. <보기>에서 설명하는 로마의 주택정원 스타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타블리니움의 뒤편, 즉 호르투스가 있던 자리에 만들어졌다.
• 사각형의 정원은 2~3개의 기둥이 있는 주랑으로 둘러싸였으며 나무가 심어졌다.
• 이 스타일의 등장은 정원이 주택 내부로 도입됨을 의미했다.

① 아트리움을 갖춘 초기 스타일
② 페리스타일
③ 자한기르스타일
④ 알함브라스타일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마 주택정원에서 후면의 호르투스가 기둥주랑으로 둘러싸인 내부 정원으로 발전한 페리스타일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로마 초기 주택은 아트리움 중심의 평면과 뒤쪽의 단순한 호르투스를 가졌다.
페리스타일은 탑리눔 뒤편의 정원을 2~3열의 기둥주랑이 둘러싸는 형식으로, 헬레니즘 영향 아래 정원이 주거 내부 공간으로 통합된 단계이다.
자한기르스타일은 무굴정원의 계단식 구성, 수로, 차하르바그 계열의 축선 구성이 핵심이다.
알함브라스타일은 이슬람계 중정과 수반, 수로, 음영과 물의 연출이 중심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아트리움을 갖춘 초기 스타일은 아트리움과 그 뒤의 호르투스가 중심인 이탈리아계 초기 주택 형식이다. 보기처럼 탑리눔 뒤에 사각형 정원을 두고 기둥주랑으로 둘러 내부 생활공간으로 끌어들인 단계와 다르다. 틀린 표현은 '초기 스타일'이다. 올바르게는 초기 아트리움형 이전의 호르투스가 페리스타일 단계에서 내부 정원으로 발전한다.
② O: 페리스타일은 탑리눔 뒤편에 놓인 사각형 정원을 기둥주랑이 둘러싼 로마 주택정원 형식이다. 보기에 나온 '호르투스 자리에 조성', '2~3개의 기둥이 있는 주랑', '정원이 주택 내부로 도입'이라는 설명이 모두 페리스타일의 특징과 맞는다.
③ X: 자한기르스타일은 인도 무굴계 정원 양식으로 수로, 분수, 축선, 차하르바그식 구획이 핵심이다. 로마 도시주택 내부의 후면 주랑정원을 설명하는 보기와 계통이 전혀 다르다. 틀린 표현은 '자한기르스타일'이다. 올바르게는 무굴정원이 아니라 로마의 페리스타일이다.
④ X: 알함브라스타일은 스페인 이슬람계 정원으로 중정과 물길, 반사수면, 장식적 수공간이 중심이다. 보기의 핵심은 로마 주택 평면에서 호르투스가 기둥주랑 정원으로 바뀌는 점이다. 틀린 표현은 '알함브라스타일'이다. 올바르게는 이슬람 중정형이 아니라 로마의 페리스타일이다.

### 오답 포인트

정원에 기둥과 물이 등장하면 이슬람정원이나 무굴정원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 문항의 판별 기준은 양식의 장식 요소가 아니라 로마 주택 평면의 위치 관계이다. '탑리눔 뒤편', '호르투스가 있던 자리', '주택 내부로 도입'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페리스타일을 우선 떠올리게 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로마 주택정원 문제는 먼저 정원의 위치를 본다. 아트리움 중심의 초기형인지, 탑리눔 뒤 후면 정원이 기둥주랑으로 둘러싸인 페리스타일인지 구분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지역과 문명권이 로마가 아닌 무굴·이슬람으로 넘어가면 자한기르스타일과 알함브라스타일은 바로 제외된다.

### 암기 포인트

호르투스의 실내화가 페리스타일이다.

NoteBase

**문 5. 니콜라스 푸케의 의뢰로 르 노트르에 의해 설계된 보르비콩트(Vaux-le-Vicomt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상지 규모는 남북으로 약 1,200m, 동서로 약 600m에 이른다.

② 전체 구성은 넓은 중앙의 원로를 따라서 균형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③ 정원 감상을 위한 명확한 지침서가 작성되었다.

④ 성관 건물(main building)은 정원에 부속된 하나의 단위요소로 존재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르 노트르가 설계한 프랑스 바로크 정원 보르비콩트의 공간 구성 원리와 감상 방식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보르비콩트는 르 노트르의 축선적 구성, 강한 원근감, 대칭성과 통일성이 잘 드러나는 프랑스 정형식 정원의 대표작이다.
이 정원에서는 넓은 중앙축을 따라 공간이 전개되고, 성관 건물도 전체 정원 구성 안에 편입된 하나의 요소처럼 작동한다.
반면 르 노트르가 정원 감상을 위한 명확한 지침서를 직접 써서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보르비콩트의 대상지는 교재에서 남북 약 1,200m, 동서 약 600m 규모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선지는 대상지 규모에 대한 통상적 설명과 부합한다.

② O
르 노트르의 정원은 넓은 중앙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구성이 핵심이다. 보르비콩트도 중앙의 원로와 축선을 따라 전체 공간이 질서 있게 조직된다.

③ X
틀린 부분은 '정원 감상을 위한 명확한 지침서가 작성되었다'는 표현이다. 르 노트르는 보르비콩트 감상을 위한 별도의 명확한 지침서를 남긴 인물로 보지 않으며, 이 정원의 감상은 축선 이동에 따라 시점과 원근이 전개되도록 공간적으로 유도된다.

④ O
보르비콩트에서는 성관 건물도 정원 전체 질서 속에 놓인 하나의 구성 요소로 이해된다. 즉 건물이 정원을 지배한다기보다 정원과 함께 통합된 전체 구성을 이룬다.

**오답 포인트**

③은 '르 노트르의 공간 연출'을 '르 노트르가 직접 쓴 감상 지침서'로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프랑스 정형식 정원은 축선, 대칭, 원근, 시점 변화로 감상을 유도하지만 이를 곧바로 명시적 지침서의 존재로 연결하면 틀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르 노트르의 대표 정원이 나오면 먼저 중앙축, 대칭, 원근, 통일성, 정원 우위의 구성을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저술 활동이나 감상 지침서의 존재를 단정하는 표현이 나오면 의심하는 판단이 맞다.

**암기 포인트**

르 노트르 = 축선·대칭·원근의 정원, 지침서 저자가 아니라 공간 연출의 설계자이다.

NoteBase

**문 6. 19세기 영국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시민의 힘으로 조성된 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셉 팩스턴(Joseph Paxton)이 설계했다.

② 공원의 이름은 버컨헤드 공원(Birkenhead Park)이다.

③ 공원 부지는 사적인 주택단지와 공적인 위락공간으로 구분된다.

④ 택지를 무상으로 분양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버컨헤드 공원의 역사적 의의와 조성 방식, 특히 설계자와 재원 조달 구조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버컨헤드 공원은 19세기 영국의 대표적 시민공원으로, 조셉 팩스턴이 설계하였고 공공 위락공간과 주변 주택지 개발을 결합한 초기 공원 조성 사례이다. 핵심은 공원의 공공성 자체와 별개로 주변 택지는 매각하여 공원 조성비를 충당했다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셉 팩스턴은 버컨헤드 공원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설계자와 공원명을 연결하는 기본 사실이므로 옳다.

② O

문제에서 말하는 역사상 최초의 시민공원은 버컨헤드 공원을 가리킨다. 공원의 명칭을 정확히 적은 선지이므로 옳다.

③ O

버컨헤드 공원은 공적인 위락공간과 그 주변의 사적인 주택지 개발을 함께 계획한 사례이다. 공공 공원과 민간 주거지의 결합 구조를 설명한 선지이므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무상으로 분양해"이다.

실제로는 주변 택지를 무상으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매각하여 그 수익으로 공원 조성 비용을 충당하였다.

올바르게는 "주변 택지를 매각하여 공원 조성 재원을 마련한 사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시민공원이라는 공공성 때문에 택지까지 무상 제공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이 문항의 함정은 공공공간의 성격과 재원 조달 방식을 혼동시키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원사 문항에서는 설계자, 공원명, 공원의 역사적 의의, 재원 조달 방식의 네 요소를 먼저 대조하면 된다. 특히 "무상 분양"처럼 재정 구조를 뒤집는 표현은 오답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버컨헤드 공원은 조셉 팩스턴 설계, 공공 공원과 주변 주택지 개발의 결합, 재원은 무상 분양이 아니라 택지 매각이다.

NoteBase

**문 7. 로렌스 할프린(Lawrence Halprin)의 조경 작업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Motation

② Overlay

③ RSVP

④ Workshop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렌스 할프린의 대표 작업어를 다른 조경 이론가의 방법론과 구별하는 인물·이론 매칭 문제이다.

**핵심 정리**

로렌스 할프린은 인간의 움직임과 공간 경험을 기록하는 Motation, 창작 과정을 구조화한 RSVP Cycles, 참여적 설계 실천으로서의 Workshop과 연결된다.
Overlay는 여러 환경 요소를 중첩해 분석하는 생태계획 방법으로, 할프린의 대표 키워드라기보다 이언 맥하그 계열의 방법론과 가깝다.

**선지별 해설**

① O. Motation은 움직임을 악보처럼 표기하여 공간 경험을 읽는 할프린의 대표 개념이다. 따라서 할프린의 조경 작업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적절하다.
② X. Overlay는 토양, 수문, 식생 등 여러 층의 정보를 중첩해 적지를 찾는 분석 기법이다. 틀린 표현은 'Lawrence Halprin의 조경 작업 키워드'라는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이 개념은 이언 맥하그의 생태적 중첩분석법 쪽과 연결된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 가장 옳지 않은 선택지이다.
③ O. RSVP는 Resources, Scores, Valuaction, Performance로 이어지는 창작 과정 모형인 RSVP Cycles를 가리키며 할프린의 핵심 작업어이다.
④ O. Workshop은 이용자 참여와 집단적 아이디어 생산을 중시한 할프린의 설계 방식과 연결된다. 따라서 할프린의 조경 작업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볼 수 있다.

**오답 포인트**

Overlay도 조경계획에서 매우 유명한 용어이므로 할프린의 작업어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할프린은 움직임, 참여, 창작 과정의 언어가 핵심이고, Overlay는 생태분석 중심의 맥하그 계열 키워드라는 점이 구분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매칭 문제는 고유명사보다 대표 어휘의 결을 먼저 본다. 할프린은 movement·participation·process의 축으로, 맥하그는 ecological overlay의 축으로 묶이면 빠르게 판단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할프린 = Motation · RSVP · Workshop / Overlay = 맥하그이다.

NoteBase

**문 8. 미국 워싱턴 내셔널몰과 프랑스 파리 콩코르드 광장의 오벨리스크에 영향을 준 조경사적 의미를 갖는 국가 혹은 문명은?**

① 이집트
② 메소포타미아
③ 그리스
④ 로마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오벨리스크라는 기념 경관 요소의 원형이 어느 문명에서 나왔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이집트: 오벨리스크와 기념축이 발달한 문명으로, 후대 서구 기념 경관의 상징 요소로 차용되었다.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와 관개 문명이 대표적이며 오벨리스크의 원류와는 거리가 있다.
그리스: 아고라와 신전 중심 공간이 대표적이며 오벨리스크가 대표 조형은 아니다.
로마: 포룸과 직선 가로가 대표적이고,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에서 받아들여 재배치한 경우가 많다.

**선지별 해설**

① O - 워싱턴 내셔널몰의 워싱턴 기념탑은 오벨리스크 형식을 취하고, 파리 콩코르드 광장의 룩소르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 유래의 기념물이다. 두 사례의 조경사적 상징성은 이집트 문명과 연결된다.
② X - 틀린 부분은 "메소포타미아"이다. 메소포타미아의 대표 유산은 지구라트, 성곽도시, 관개체계이며 오벨리스크 경관의 직접 원형으로 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이집트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그리스"이다. 그리스는 아고라, 스토아, 신전 경관이 핵심이며 오벨리스크가 대표 상징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이집트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로마"이다. 로마가 이집트 오벨리스크를 수용하고 재배치한 적은 있지만, 오벨리스크의 원류 자체는 로마가 아니라 이집트이다.

**오답 포인트**

④ 로마가 가장 헷갈리기 쉽다. 로마가 오벨리스크를 제국 수도에 옮겨 세운 사실 때문에 원류와 수용을 혼동하기 쉽지만, 출제 포인트는 차용 주체가 아니라 발생 문명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제에 오벨리스크, 피라미드형 기념성, 고대 석주 상징이 나오면 먼저 이집트를 떠올린다. 로마나 근대 서구 도시는 이를 받아들여 재해석한 사례로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오벨리스크의 원류는 이집트이고, 로마와 근대 서구는 차용자이다.

NoteBase

**문 9. 북경(北京)에서 동북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하북성 승덕(河北省 承德)에 조영된 원림은?**

① 졸정원(拙政園)

② 유원(留園)

③ 피서산장(避暑山莊)

④ 사자림(獅子林)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국 대표 원림의 명칭과 입지, 성격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피서산장: 하북성 승덕에 조성된 청대 황실 원림이자 이궁이다.
졸정원: 강소성 소주에 있는 대표적 사가원림이다.
유원: 소주에 있는 명원으로 강남 사가원림 계열이다.
사자림: 소주에 있는 원림으로 괴석 경관으로 유명하다.

**선지별 해설**

1번 X: 졸정원은 승덕이 아니라 소주에 있는 대표적 강남 원림이다. 틀린 부분은 "승덕에 조성된 원림"이라는 연결이며, 올바르게는 "소주에 있는 명원"이다.
2번 X: 유원도 승덕이 아니라 소주의 원림이다. 틀린 부분은 위치 연결이며, 올바르게는 "소주의 사가원림"이다.
3번 O: 피서산장은 북경에서 동북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승덕에 조성된 청대 황실 원림이므로 문제의 설명과 일치한다.
4번 X: 사자림 역시 승덕이 아니라 소주에 있는 원림이다. 틀린 부분은 위치 연결이며, 올바르게는 "소주의 괴석 중심 원림"이다.

**오답 포인트**

중국 원림사에서는 소주의 명원들이 자주 함께 묶여 나오므로 졸정원, 유원, 사자림을 모두 승덕의 피서산장과 같은 계열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원림의 이름보다 위치를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노린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국 원림 문제는 먼저 위치를 기준으로 나누면 빠르게 정리된다. 승덕이면 황실 원림인 피서산장이고, 소주이면 졸정원·유원·사자림 같은 강남 명원으로 판단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승덕은 피서산장, 소주는 졸정원·유원·사자림이다.

NoteBase

**문 10. 중국의 『설문해자(說文解字)』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園)은 꽃과 관상수를 심는 곳을 말한다.

② 포(圃)는 채소를 심는 곳을 말한다.

③ 유(囿)는 금수를 키우는 곳을 말한다.

④ 원(園)은 과실수를 심는 곳을 말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설문해자』에 나오는 중국 원림 관련 용어의 뜻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園은 과실수를 심는 곳을 뜻한다.
圃는 채소를 심는 곳을 뜻한다.
囿는 금수를 기르는 곳을 뜻한다.
圓은 둥글다, 원형이라는 뜻의 글자이지 원림 공간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圓`과 `꽃과 관상수`라는 연결이다.
- 『설문해자』에서 원림 관련 분류는 園·圃·囿로 잡으며, 圓은 둥글다 또는 원형을 뜻하는 글자이다.
- 올바르게는 園은 과실수를 심는 곳을 뜻한다.

② O
- 圃는 채소를 재배하는 밭이나 뜰을 뜻하므로 채소를 심는 곳이라는 설명이 맞다.

③ O
- 유는 금수를 기르는 공간을 가리키는 개념이므로 내용상 맞는 설명이다.
- 『설문해자』의 통상적인 표기는 囿이며, 핵심은 금수 사육 공간이라는 뜻이다.

④ O
- 園은 과실수를 심는 곳이라는 뜻이므로 과실수를 심는 곳이라는 설명이 맞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園과 圓은 음이 비슷해 보이지만 뜻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원`이라는 한국음만 보고 고르면 ①과 ④를 뒤바꾸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원형을 먼저 확인한 뒤 재배 대상이 무엇인지 연결하면 된다. 果樹이면 園, 채소이면 圃, 금수이면 囿이고, 圓이 나오면 원림 용어가 아니라 원형 의미인지부터 본다.

### 암기 포인트

園=과수, 圃=채소, 囿=금수, 圓=둥글다.

NoteBase

**문 11. <보기>에서 설명하는 일본의 정원서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이도현추리(離島軒秋里)가 저술하였다.
• 정원의 종류를 축산(築山), 평정(平庭), 로지(路地)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진(眞), 행(行), 초(草)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① 『제국다정명적도회』
② 『석조원생팔중원전』
③ 『축산정조전후편』
④ 『여경작정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도헌추리의 정원서와 그 책의 대표 분류 체계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이도헌추리의 『축산정조전후편』은 정원을 축산, 평정, 노지로 나누고 각 형식을 다시 진, 행, 초로 세분한 책이다.
『석조원생팔중원전』도 이도헌추리의 저술이지만 울타리, 다리, 문, 돌담, 징검돌 같은 시설물과 석조법 설명이 중심이다.
『제국다정명적도회』는 다정과 서원정의 명적을 소개하는 성격이 강하고, 『여경작정도』는 정원 장면을 도해한 화보 계열로 보아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제국다정명적도회』는 노지정과 서원정의 사례를 소개하는 책으로 보는 편이 맞다. 보기처럼 정원을 축산, 평정, 노지로 분류하고 다시 진, 행, 초로 나누는 체계는 아니다. 틀린 표현은 '보기의 분류 체계를 설명하는 정원서'이고, 올바르게는 '다정 명적과 서원정 사례를 소개하는 정원서'이다.

② X
『석조원생팔중원전』은 이도헌추리의 저술이라는 점은 맞지만, 핵심 내용은 각종 정원 시설물과 석조법이다. 보기의 분류 체계처럼 정원 형식을 3종으로 나누고 다시 진·행·초로 설명한 책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축산·평정·노지 및 진·행·초 체계를 설명한 책'이고, 올바르게는 '시설물과 배석법을 설명한 책'이다.

③ O
『축산정조전후편』은 이도헌추리가 저술하였고, 정원을 축산, 평정, 노지로 나눈 뒤 다시 진, 행, 초의 유형으로 설명한 책이다. 보기의 저자와 분류 체계가 모두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④ X
『여경작정도』는 정원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 주는 계열의 자료로 이해하는 편이 맞다. 보기처럼 이도헌추리의 대표 분류 체계를 담은 책으로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이도헌추리의 축산·평정·노지 분류서'이고, 올바르게는 '정원 경관을 도해한 별개의 정원 자료'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같은 저자라는 점 때문에 가장 많이 흔들리는 선택지이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핵심은 저자명이 아니라 '축산·평정·노지'와 '진·행·초'라는 분류 체계이다. ①과 ④도 일본 정원서 이름이라는 점에서 그럴듯하지만, 보기의 분류 문구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본 정원서 문제는 먼저 책 제목보다 대표 키워드를 잡아야 한다. '축산·평정·노지'와 '진·행·초'가 보이면 이도헌추리의 『축산정조전후편』으로 판단하면 된다. 시설물·배석법이 나오면 『석조원생팔중원전』, 다정명적 소개가 나오면 『제국다정명적도회』로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축산·평정·노지 + 진·행·초 = 이도헌추리 『축산정조전후편』이다.

NoteBase

**문 12. 우리나라 고대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구려시대 안학궁의 공원(宮苑)에는 조산(造山)과 괴석을 배치하였다.

② 백제시대 무덤은 적석무덤이 주류를 이루었다.

③ 백제시대 궁남지는 신선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④ 통일신라시대 포석정에서는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이 행해졌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구려·백제·통일신라의 정원과 묘제 특징을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고구려 궁원은 연못과 조산을 갖춘 궁궐 후원이 확인된다.
백제 궁남지는 방장선산을 본뜬 섬을 둔 신선정원으로 이해된다.
백제의 묘제는 한성·웅진·사비 시기를 거치며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6세기 이후에는 굴식 돌방무덤이 중심이 된다.
포석정은 술잔을 띄워 시를 짓는 유상곡수연의 수로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선지별 해설**

1번 O: 안학궁 유적에서는 궁원·연못·후원 시설과 인공 조산의 흔적이 확인된다. 고구려 궁원에 조산과 괴석을 두었다는 설명은 이러한 궁원 조경의 특징에 부합한다.
2번 X: 틀린 부분은 "적석무덤이 주류"라는 표현이다. 백제 무덤은 돌무지무덤, 널무덤, 돌덧널무덤, 벽돌무덤 등으로 다양하며, 6세기 이후에는 굴식 돌방무덤이 중심이 되었다.
3번 O: 궁남지는 연못 가운데 섬을 두어 방장선산을 본뜬 신선정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신선사상, 곧 도교적 관념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은 옳다.
4번 O: 포석정지는 신라 이궁의 유배거 유적으로, 물길에 술잔을 띄우는 유상곡수연이 행해진 장소로 설명된다.

**오답 포인트**

백제의 초기 고분 가운데 돌무지무덤 계열이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2번을 맞는 말처럼 보기 쉽다. 그러나 한 시기의 일부 묘제를 백제 전체의 주류로 일반화한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삼국 조경사·묘제 문제는 시대와 대상을 먼저 나눈다. 정원은 궁남지=신선사상, 포석정=유상곡수연처럼 대표 기능을 연결하고, 무덤은 특정 시기의 형식을 왕조 전체의 대표 양식으로 확대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궁남지=방장선산, 포석정=유상곡수연, 백제 묘제=다양하되 후기에 굴식 돌방무덤 중심이다.

NoteBase

**문 13. 고려시대 기홍수(奇洪壽)의 정원을 묘사한 「기상서 퇴식재팔영(寄尙書退食齋八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의지(漣漪池)는 방지(方池)로 조성해 연꽃을 심어 감상한 장소이다.

② 녹균헌(綠筠軒)은 대나무를 심어 사시사철 푸르른 식물을 감상한 곳이다.

③ 영천동(靈泉洞)은 물줄기가 돌구멍 사이로 흘러 그 밑의 샘으로 떨어지는 곳이다.

④ 대호석(大湖石)은 석가산을 조성하듯 돌을 배치하여 이를 형산(荊山), 여산(廬山)에 비유한 곳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홍수의 「퇴식재팔영」에 보이는 정원 구성 요소의 명칭과 공간 성격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연의지는 연꽃을 심어 감상한 연못 공간이며, 핵심 구별점은 연못의 형태가 방지가 아니라 곡지라는 점이다.
녹균헌은 대나무를 심어 사시사철 푸른 식물을 감상한 공간이다.
영천동은 물줄기가 돌구멍 사이를 지나 아래의 샘이나 못으로 떨어지는 수경 공간이다.
대호석은 돌을 배치해 석가산처럼 꾸민 괴석 감상 공간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방지(方池)'이다. 연의지는 연꽃을 심어 감상한 연못이라는 설명은 맞지만, 형태는 네모난 방지가 아니라 굽은 형태의 곡지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연의지는 곡지로 조성해 연꽃을 심어 감상한 장소이다.'이다.
2번: O. 녹균헌은 이름의 '균'이 대나무를 가리키며, 대나무를 심어 늘 푸른 식물을 감상한 곳이라는 설명과 부합한다.
3번: O. 영천동은 물이 돌구멍 사이를 흘러 아래로 떨어지는 경관을 표현한 공간으로, 물의 흐름과 낙수 장면을 묘사한 설명이 맞다.
4번: O. 대호석은 큰 돌을 배치해 산악 경관을 축소해 놓은 듯한 석가산적 공간을 뜻하므로, 형산과 여산에 비유한 설명이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연못 관련 용어인 방지와 곡지를 바꾸어 제시하면 쉽게 흔들린다. 이 문항은 연의지의 감상 대상인 연꽃은 그대로 두고 연못의 형태만 바꿔 놓은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원 요소 문제는 이름의 끝 글자부터 본다. '지'는 연못, '헌'은 식물을 감상하는 건축 공간, '동'은 물이 흐르는 동굴형 수경, '석'은 괴석이나 석가산과 연결해 판단하면 정답을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연의지는 곡지의 연못, 녹균헌은 대나무, 영천동은 낙수, 대호석은 석가산이다.

NoteBase

**문 14. 뜰 안의 경관이 좋은 곳을 골라 옮겨다니면서 글을 읽고 차와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둘 수 있도록 고안된 이동식 정자에 관한 기록인 「사륜정기(四輪亭記)」의 저자는?**

① 최충헌(崔忠獻)

② 우공(于公)

③ 응재(應才)

④ 이규보(李奎報)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 관련 기록물인 「사륜정기(四輪亭記)」와 그 저자를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인물·저작 매칭 문제이다.

**핵심 정리**

최충헌은 고려 무신정권의 집권자이다.
우공은 「사륜정기」의 저자로 연결되는 인물이 아니다.
응재 역시 「사륜정기」의 저자명이 아니다.
이규보는 고려의 대표 문인으로 『동국이상국집』에 「사륜정기」를 남겼고, 그 글에서 경치 좋은 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정자 구상을 기록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최충헌은 고려 무신집권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사륜정기」를 쓴 문인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저자'이며, 올바르게는 '「사륜정기」의 저자는 이규보이다'이다.
② X: 우공은 「사륜정기」의 저자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 글은 고려 문인 이규보의 작품이다. 틀린 표현은 '우공이 저자이다'이며, 올바르게는 '이규보가 저자이다'이다.
③ X: 응재도 「사륜정기」의 저자가 아니다. 저자 매칭이 잘못되었다. 틀린 표현은 '응재가 저자이다'이며, 올바르게는 '이규보가 저자이다'이다.
④ O: 이규보는 「사륜정기」의 저자이다. 이 글은 뜰 안의 경관이 좋은 곳으로 옮겨 가며 독서·음주·바둑을 즐길 수 있는 이동식 정자 구상을 기록한 내용과 정확히 맞는다.

**오답 포인트**

인명 한자 표기가 함께 제시되면 익숙하지 않은 이름에 끌려 오답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세부 생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륜정기」라는 저작명과 이규보를 연결하는 기본 짝을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경사 인물 문제는 저작명이나 기록물 제목을 먼저 보고, 그 제목과 바로 연결되는 대표 인물을 찾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사륜정기」처럼 이동식 정자와 풍류적 정원 생활을 기록한 글은 이규보로 연결하면 된다.

### 암기 포인트

사륜정기 = 이규보 = 이동식 정자 기록이다.

NoteBase

**문 15.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선시대 가옥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바깥마당에 부정형 연못이 조성되었다.
• 사랑채 후정 화계에 석상과 돌확이 놓였다.
• 배산임수 지형에 입지하고, 풍수적으로 평사낙안(平沙落雁)의 땅, 지네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① 정읍 김명관 고택
② 구례 운조루 고택
③ 달성 삼가헌 고택
④ 함양 일두 고택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시대 고택의 정원 요소와 풍수적 입지 특징을 해당 고택명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정읍 김명관 고택: 부정형 연못, 사랑채 후정 화계의 석상과 돌확, 평사낙안의 지네 명당으로 연결되는 호남 사대부가 주택이다.
구례 운조루 고택: 호남의 대표 반가로 풍수 명당과 큰 규모로 유명하며, 특히 운조루와 타인능해 뒤주로 널리 알려진다.
달성 삼가헌 고택: 영남 지역의 별당과 연못 경관이 특징인 고택으로, 보기의 평사낙안·지네 명당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함양 일두 고택: 일두 정여창과 관련된 종가 계열 고택으로, 유교적 가거 구조가 핵심이며 보기의 정원 장치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1번 O: 보기의 핵심 단서는 부정형 연못, 사랑채 후정 화계의 석상과 돌확, 평사낙안의 지네 명당이라는 조합이다. 이 조합은 정읍 김명관 고택의 입지와 정원 구성 설명에 해당하므로 옳다.
2번 X: 틀린 부분은 보기의 풍수 형국과 정원 요소를 운조루에 연결한 점이다. 구례 운조루는 대표적인 고택이지만, 보기의 평사낙안·지네 명당과 사랑채 후정 화계의 석상·돌확 설명으로 특정되는 대상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정읍 김명관 고택과 연결된다.
3번 X: 틀린 부분은 보기의 부정형 연못과 평사낙안 형국을 삼가헌에 연결한 점이다. 달성 삼가헌 고택은 별당과 연못 경관으로 알려져 있으나, 보기처럼 사랑채 후정 화계의 석상과 돌확, 지네 명당으로 특정되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정읍 김명관 고택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보기의 정원 장치와 풍수 설명을 일두 고택에 연결한 점이다. 함양 일두 고택은 정여창과 관련된 종가 고택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고, 보기의 부정형 연못과 평사낙안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니다. 올바르게는 정읍 김명관 고택과 연결된다.

### 오답 포인트

운조루처럼 유명한 호남 고택을 보면 풍수 명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막연한 명성보다 평사낙안, 지네 명당, 부정형 연못, 사랑채 후정 화계의 석상과 돌확처럼 세부 단서를 묶어서 판단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 고택 문제는 고택명만 외우지 않고 고택명-풍수 형국-정원 요소-대표 공간구성의 묶음으로 판단한다. 풍수 단서와 정원 시설 단서가 동시에 맞는지를 먼저 대조하면 정답을 좁힐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정읍 김명관 고택 = 평사낙안 지네 명당 + 부정형 연못 + 사랑채 후정 석상·돌확이다.

NoteBase

**문 16. 매(梅), 송(松), 국(菊), 죽(竹)이 재식되어 있는 사우단이 위치한 별서는?**

① 성락원

② 초간정

③ 서석지

④ 소쇄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통 별서정원의 고유 공간 요소를 정원 이름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성락원: 서울 성북동의 별서정원으로 쌍류동천·용두가산·영벽지가 대표 요소이다.
초간정: 예천의 계류·암반·송림 경관을 중심으로 한 원림이다.
서석지: 영양의 연못 중심 별서로 주일재 앞 사우단에 매·송·국·죽을 심은 곳이다.
소쇄원: 담양의 대표 별서로 제월당·광풍각을 중심으로 한 계곡형 원림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성락원이다. 성락원의 대표 요소는 쌍류동천·용두가산·영벽지이며 사우단과 연결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사우단이 위치한 별서는 서석지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초간정이다. 초간정은 바위를 휘돌아 흐르는 계류와 송림 경관이 핵심인 원림으로, 매·송·국·죽을 심은 사우단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사우단이 위치한 별서는 서석지이다.
3번: O. 서석지는 주일재 앞 연못 쪽으로 돌출한 석단을 사우단이라 하고, 그곳에 매·송·국·죽을 심어 사우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발문과 일치한다.
4번: X. 틀린 부분은 소쇄원이다. 소쇄원은 제월당·광풍각·오곡문 등으로 대표되는 별서이며 사우단이 있는 곳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사우단이 위치한 별서는 서석지이다.

**오답 포인트**

전통정원 문제는 정원 이름보다 그 안의 고유 공간명으로 구별하는 경우가 많다. 사우단을 소쇄원의 제월당·광풍각이나 성락원의 쌍류동천처럼 다른 정원의 대표 시설과 섞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별서정원 문제는 고유 명칭을 먼저 대응시키면 빠르게 풀린다. 사우단은 서석지, 제월당·광풍각은 소쇄원, 쌍류동천·영벽지는 성락원, 계류와 암반 중심 원림은 초간정으로 연결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매·송·국·죽의 사우단은 서석지 주일재 앞이다.

NoteBase

**문 17. 조선시대 종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조 4년(1395)에 건립되었다.

② 조산(造山)을 통해 지세를 돋우었다.

③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종묘 밖에 연못을 조성하였다.

④ 괴석을 배치하거나 화려한 수목을 식재한 화계를 만들지 않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시대 종묘의 건립 시기와 공간 배치, 제례 공간으로서의 조경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종묘는 조선 왕실의 제례를 위한 사당으로, 화려한 원림보다 엄숙성과 검소성을 중시한 공간이다. 조선 건국 직후 태조 4년(1395)에 창건되었고, 지세 보완을 위해 종묘 남쪽에 조산을 두는 등 풍수적 고려도 반영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종묘는 조선 건국 직후인 태조 4년(1395)에 건립된 왕실 사당이다. 건립 연대에 관한 설명이므로 옳은 선지이다.

② O

조산은 인공적으로 만든 낮은 산 또는 언덕으로, 종묘에서는 이를 통해 부족한 지세를 보완하였다. 풍수적 결함을 보완한 장치라는 점에서 옳은 선지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종묘 북에 연못"이라는 표현이다. 풍수지리를 고려해 조성한 대표적 보완 시설은 종묘 북쪽의 연못이 아니라 종묘 남쪽의 조산이다. 올바르게는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종묘 남쪽에 조산을 조성하였다"고 이해한다.

④ O

종묘는 왕실 제례 공간이므로 괴석을 배열하거나 화려한 수목으로 화계를 꾸미는 방식의 장식적 정원을 지향하지 않았다. 검소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옳은 선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풍수지리"와 "연못"을 연결해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그러나 종묘의 대표적 풍수 보완 장치는 남쪽 조산이며, 종묘의 공간 성격도 화려한 원림이 아니라 제례 중심의 절제된 공간이라는 점을 놓치면 헷갈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묘 관련 문제는 먼저 1395년 창건, 남쪽 조산, 제례 공간의 검소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잡아 판단한다. 방향을 바꾸거나 화려한 조경 시설을 끼워 넣는 선지는 오답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종묘는 1395년 창건, 남쪽 조산, 화려한 정원보다 검소한 제례 공간이다.

NoteBase

**문 18. 「동궐도(東闕圖)」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창덕궁과 창경궁을 조감도의 형식으로 그린 그림이다.

② 화계, 취병, 분재, 괴석, 풍기대 등 다양한 시설물이 표현되어 있다.

③ 건물 주위와 산록에 노송이 위치하고, 교목과 관목, 초화류가 서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영조 50년(1774) 정조가 세손 때에 작성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궐도의 성격, 제작 시기, 그리고 그림에 나타난 궁궐 조경 요소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궐도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높은 시점에서 내려다보듯 그린 조선 후기 궁궐 기록화이다. 건축물만이 아니라 화계, 취병, 괴석, 풍기대 같은 시설물과 소나무 중심의 식생까지 세밀하게 담겨 있어 궁궐 조경과 생활상을 읽는 핵심 자료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동궐도는 경복궁의 동쪽에 있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궁궐 그림이다. 부감법 또는 조감법으로 궁궐과 후원을 높은 시점에서 내려다본 듯 표현한 작품이므로 옳다.
② O: 동궐도에는 궁궐 전각뿐 아니라 취병, 괴석, 풍기대 같은 부수 시설물과 조경물이 매우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화계와 분재를 포함한 장식적 조경 요소도 함께 읽히므로 옳다.
③ O: 동궐도는 궁궐 건축 주변의 식재 양상을 읽을 수 있는 기록화이다. 소나무가 두드러지고 교목·관목·초화류가 함께 배치된 층위적 식재구조가 나타나므로 건물 주위와 산록의 식생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졌다는 설명은 옳다.
④ X: 틀린 표현은 '영조 50년(1774) 정조가 세손 때에 작성하였다'이다. 올바르게는 동궐도는 정조 세손 시기의 작품이 아니라 순조 연간, 대체로 1828년에서 183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후기 궁궐도이다.

**오답 포인트**

정조와 효명세자를 혼동하거나, 동궐도를 단순한 건축도면으로만 보면 ④에 속기 쉽다. 이 그림은 18세기 영조대 자료가 아니라 19세기 순조대 궁궐 경관을 보여 주는 기록화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궁궐 회화 문제는 먼저 대상 궁궐이 무엇인지, 시점이 조감도인지, 그리고 그림 속에 어떤 조경 요소가 읽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제작 연대를 관련 전각의 존재 시기와 연결해 보면 시대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동궐도는 창덕궁·창경궁을 그린 조선 후기 조감도형 궁궐 기록화이며, 정조가 아니라 순조 연간의 작품이다.

NoteBase

**문 19. 읍성의 풍수형국이 옥녀산발형(玉女散髮形)이며, 읍성 자체의 형국은 행주형(行舟形)으로, 마을 동쪽에 있는 산이 지나치게 험한 까닭에 동문 밖에 석구(石狗) 한 쌍을 놓아 염승(厭勝)한 읍성은?**

① 나주읍성
② 낙안읍성
③ 고창읍성
④ 정의읍성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읍성의 풍수 형국과 비보 시설을 묶어 해당 읍성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고을의 풍수형국이 옥녀산발형이다.
핵심 사실 2: 읍성 자체의 형국이 행주형이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동쪽 산세가 험하여 동문 밖에 석구 한 쌍을 두어 엽승했다는 단서까지 함께 맞아야 한다.

**핵심 개념**

낙안읍성은 옥녀산발형의 고을 터 위에 놓인 행주형 읍성으로 이해되며, 동문 밖 석구가 대표적인 비보 풍수 장치로 연결되는 사례이다.
적용 요건은 풍수 형국, 읍성 형국, 성문 밖 비보 시설이라는 세 단서가 동시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적용 기준**

이 문항은 행주형이라는 한 단서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옥녀산발형과 동문 밖 석구라는 결합 단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비슷한 읍성이 있어도 세 단서가 모두 맞는 곳을 고르면 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나주읍성은 나주시 중심부에 축성된 평지성이며 평면도 남북 장축의 타원형에 가깝다. 문제의 핵심 단서인 옥녀산발형, 행주형, 동문 밖 석구 엽승으로 설명되는 읍성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나주읍성'이라는 대상 지정이며, 올바르게는 낙안읍성이다.
② O. 낙안읍성은 고을 형국을 옥녀산발형으로 보고 읍성 자체를 행주형으로 해석한 대표 사례이다. 동쪽의 험한 산세를 누르기 위해 동문 밖에 석구를 둔 비보 풍수 단서까지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③ X. 고창읍성은 모양성이라고도 불리며 읍내 한가운데의 평지 읍성과 달리 반등산을 에워싸며 축조된 읍성이다. 따라서 문제의 옥녀산발형, 행주형, 동문 밖 석구 조합과는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고창읍성'이라는 대상 지정이며, 올바르게는 낙안읍성이다.
④ X. 정의읍성은 제주 성읍마을의 읍성으로 작게 보면 행주형이라고 설명되지만 크게는 장군대좌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행주형이라는 일부 단서만 비슷할 뿐, 옥녀산발형과 동문 밖 석구 한 쌍이라는 결정 단서까지 맞는 곳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정의읍성'이라는 대상 지정이며, 올바르게는 낙안읍성이다.

### 오답 포인트

행주형이라는 한 단서만 기억하면 ④ 정의읍성으로 흔들리기 쉽다. 이 문제는 형국 이름 하나가 아니라 옥녀산발형, 동문 밖 석구, 엽승이라는 결합 단서를 함께 읽는지가 핵심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읍성 식별 문제는 형국 이름 하나만 보지 않고 지형 해석, 성의 형태, 비보 시설을 묶어 판단한다. 선택지 중 일부가 부분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단서 세 개가 모두 맞는지를 확인하면 답이 좁혀진다.

### 암기 포인트

낙안읍성은 옥녀산발형 고을 터, 행주형 읍성, 동문 밖 석구의 조합으로 기억된다.

NoteBase

**문 2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상 우리나라 명승의 지정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관적 가치 -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② 학술적 가치 - 자연물 · 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 가치가 있는 것

③ 역사적 가치 -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④ 복합적 가치 - 숲, 교량, 고정원 등 인공경관으로서 경관이 우수한 시설이나 장소인 것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명승 지정기준의 가치 기준과 유형별 분류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자연명승·역사문화명승·복합명승을 섞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명승은 경관이 뛰어나거나 역사·학술 가치가 커서 기념물로 지정할 만한 장소이다.

**핵심 구분**

명승의 지정기준은 가치 기준과 유형별 분류기준으로 나뉜다.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는 가치 기준이고,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복합명승은 유형별 분류이다.
정원·원림 등 인공경관의 예시는 역사문화명승에 가까운 유형 설명이지 복합적 가치라는 가치 기준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경관적 가치에는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처럼 자연물·자연현상·주거지·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가 포함된다. 경관 자체의 우수성과 조망성이 핵심이므로 옳다.

② O
학술적 가치는 자연물이나 인공물이 희소하여 보존가치가 큰 경우를 말한다. 희소성과 보존가치를 연결한 설명이므로 옳다.

③ O
역사적 가치는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과의 관련성처럼 장소에 부여된 역사·문화적 의미를 본다. 관련 대상을 정확히 적었으므로 옳다.

④ X
틀린 표현은 "복합적 가치"이다. 숲, 정원·원림 등 인공경관이나 생활·생업 관련 경관은 유형별 분류에서 역사문화명승 쪽 설명에 해당한다. 복합명승은 뛰어난 자연경관에 인문적 가치가 함께 부여된 자연물이라는 점이 핵심이므로, 이 선지는 가치 기준과 유형 기준을 뒤섞어 틀렸다.
올바르게는 "정원·원림 등 인공경관으로서 경관이 우수한 시설이나 장소는 복합적 가치가 아니라 역사문화명승에 해당하는 유형 설명이다."라고 정리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복합적 가치"라는 말 때문에 가치 기준처럼 보이지만, 뒤에 붙은 내용은 실제로 인공경관의 유형 설명이다. 앞머리의 분류명과 뒤의 구체 예시가 같은 층위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쉽게 속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선지가 가치 기준을 말하는지, 유형별 분류를 말하는지부터 구분한다. 앞부분의 분류명과 뒷부분의 예시가 서로 같은 기준선 위에 있는지 대조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역사·학술·경관은 가치 기준이고, 자연·역사문화·복합은 유형 분류이다.

NoteBase